

U대회 선수촌 건립 동의안 다음주 처리

현대건설 보증안 놓고 광주시의회 의견 엇갈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사업 동의안이 다음주 광주시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광주시는 최근 현대건설과 화정주 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 채무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24

조에 따라 지난 16일 광주시의회에 이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동의안 내용을 수정하지 못할 것이라면 오늘 처리하지”고 찬성 견해를 밝혔지만, 일부는 “시간을 두고 동의안 조건을 살펴보자”고 주장했다.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시의원들에게 “선수촌이 오는 2015년 상반기 내에 완공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시의회가 서둘러 동의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

다”고 제동을 걸어 동의안 처리가 연기됐다.

김영남 의원은 “광주U대회 선수촌을 시급히 건립해야 하고, 도심 생활 차원에서 선수촌을 건립하는 데 대해 시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손재홍 의원도 “시가 제시한 동의안 조건을 수정하지 못할 바에야 오늘 동의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표·나종천·이춘문 의원도 동의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호권, 강은미, 김보현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동의안을 하루만

에 처리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동의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봉근 의장은 “동의안에 대한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늘 동의안 처리는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주 초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동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달 초 2900세대의 화정주공아파트를 30층 규모, 3727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광주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공식 제안서를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길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현대 참여 어떻게

미분양 물량·초과비용 광주시 일부 부담

국내 건설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내각 조건은 ▲미분양이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광주시의 보증 ▲조합원의 민원 등에 따른 초과비용 발생 시 광주시와 대회조직위의 보전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동안 삼성·대림을 비롯한 국내 50위권 내 건설업체들이 요구한 ‘미분양 물량 전량 광주시 보증’에 비해서는 훨씬 진전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가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일부라도 부담한다는 데 대해 다소간의 거부감은 존재하

지만,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에서는 미분양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또 조합원들의 민원이나 분쟁 등 불안요소도 대부분 제거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건설과 광주시는 먼저 ‘조합원 현금청산세대 중 10% 초과분 및 일반분양분 미분양 물량 10%까지 광주도시공사 인수 및 광주시 인수자금 조달 의무’에 합의했다. 현재 화정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900세대 중 현금청산세대, 즉 재건축아파트로 입주하지 않는 세대가 10%가 넘을 경우 그 초과분과, 재건축아파트 3727세대 중 조

합원에게 배정된 290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827세대가 미분양 될 경우 그 10%를 광주도시공사가 인수하고 그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조합 측은 현재 조합원 98% 이상이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평당 분양가(조합원 690만원, 일반 700만원 예상)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만큼 큰 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미분양 물량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비용은 최대 500억 원 정도에 불과. U대회 선수촌을

제3의 장소에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6000억원 보다도 훨씬 적고, 이를 재분양 또는 임대해 회수 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의 민원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절대준공시기인 2015년 상반기에 맞추기 위해 초과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가 책임지기로 했다.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광주시가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대신 설치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삼도(54) 조합장은 “국내 도급순위 50위권 내 건설업체들은 광주시에 더 높은 수준의 보증을 요청했으며, 광주시가 책임지기로 했던 학동 충무사에 비각을 만들고 옮겼다. 명량대첩비를 옮길 당시 우수영 원래의 터에는 노인당이 들어서 있어 인근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해남군은 17일 명량대첩비를 문내면 우수영 학동 충무사에서 원래 자리로 운반해 20일 세울 예정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서울 경복궁 균정전 뒤편에 방치되는 아픔

을 겪었다. 해방이후인 1950년 해남 지역 주민들은 ‘명량대첩비 이전 추진위원회’를 조직, 원래 위치와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학동 충무사에 비각을 만들고 옮겼다. 명량대첩비를 옮길 당시 우수영 원래의 터에는 노인당이 들어서 있어 인근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해남군은 비 건립위치에 대한 정통성 논란이 일자 지난 2008년 원설립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2009년 8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아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명량대첩비 70년 만에 제자리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명량대첩비가 70여년만에 원래 자리인 문내면 우수영 동외리로 옮겨진다.

해남군은 17일 명량대첩비를 문내면 우수영 학동 충무사에서 원래 자리로 운반해 20일 세울 예정이다.

명량대첩비(높이 2.67m·너비 1.

14m)는 정유재란 1597년 해남과 진도사이 울돌목에서 조선군이 전선 12척으로 일본 수군을 대파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688년(숙종 14년) 전라우수영성 동문밖에 세워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서울

경복궁 균정전 뒤편에 방치되는 아픔



진도 구기자

완도 비파

장성 곶감

영광 모싯잎송편

전남 22개 시·군 대표 특화작물 선정

2014년까지 1355억 투입…지역 성장동력 육성

전남 22개 시·군의 특화작물이 지역 대표식품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된다.

전남도는 17일 지역 비교우위 농수산 자원을 시·군별 대표 식품으로 육성하는 ‘1시군 1식품산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 지역별 대표식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선정한 대표식품은 ▲ 목포 것갈 ▲ 순천 합초 ▲ 여수 돌산갓 ▲ 광양 매실 ▲ 나주 배 ▲ 화순 한약초 ▲ 함평 복분자 ▲ 영광 모싯잎송편 ▲ 장성 곶감 ▲ 영암 무화과

도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군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서 선정했다.

전남도는 또 1개의 대표식품에 3~4개의 연계식품을 선정해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힘써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14년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식품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늘어나고 관련 기업 43곳이 새로 설립돼 5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자기자 dok2000@



강운태 광주시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17일 오후 광주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열린 ‘행복한 창조의 숲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타임캡슐을 묻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가족과 시민 등 900여명이 참여해 팽나무와 빛나무 등 7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광주시 “2015년까지 500만그루 더 심는다”

광주시가 오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개최 전까지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광주시는 17일 “지난 2001년부터 광주시내 곳곳에 1515만 그루의 나무

를 심었으며, 앞으로 5년 간 500만 그루를 더 식재해 도시 전체를 숲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결실을 바탕으로 2015년 광주U대회에 맞춰 2015년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녹색 탄소 숲 조성’ 운동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개방과 통합의학 시대를 준비하는
전통침구학 연수세미나

- * 의료개방 대비, 통합의학에 필요한 인재양성
- * 해외 침구사 양성 및 한방병원 설립, 취업지원
- * 중국 중의대학과 학술교류로 중국자격증 취득가능
- * 가정생활상식, 자가진단을 위한 세미나
- * 27년간 침구학을 전문으로 강의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안내

- 기본과정(4개월)
-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중급과정(6개월)
- 주요과목 : 침구치료학, 진단과치료, 자연식품과한방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 연구과정(3개월~1년, 과목별)
- 주요과목 : 사업운영, 동씨기혈, 활법운동처방, 면역학 등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개강일정
3월 25일(금) 14시	광주 21기) 4월 1일(금) 14시
4월 9일(토) 14시	광주 22기) 4월 16일(토) 14시

▶ 광주분원 위치 : 화정역 4번출구 200m 인근, 추선향관 뒷편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청소 및 건축물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청소 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 소독 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 경비 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 심 부 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 대 리 운 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 대 진 용 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 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발견일시 : 1978년 9월 4일
●발견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파출소 부근에서 길을 잃은 채 발견된 원쪽 상단 사진에 나온 남자 아이(당시 추정 나이 5세)를 아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와 동생(들)과 광천동 부근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혼자 집에서 태생(들)에게 첫째로 아래에 한두 명의 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을 주려고 꾀지를 사라 나갔다가 길을 잃었고, 이를 지나던 자전거를 탄 남자 행인이 발견해 광천파출소로 데려다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특이사항 :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혼자 자신과 동생(들)을 기르며 작은 선술집을 한 것으로 기억함. 혈액형은 (B)형이고, 발견 당시에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푸른색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동그란 얼굴에 눈이 커다란 편임.

발견된 다음해인 1979년 말에 스웨덴으로 입양되어 현재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컴퓨터 엔지니어로 독일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Audi) 자동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자동차 제어 기술 팀장으로 일하고 있음.

위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광주광역시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 ☎ 010-6622-0000 신필식(한국인 친구)

☎ 010-9556-0000 광주일보 이문수 부국장